

研究論文

구한말 운동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고찰

운동회와 민족주의의 관계

변성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수료, 외교학 전공
pkspsh@naver.com

- I. 머리말
- II. 1895-1899년의 관 주도 운동회
- III. 1905-1910년, 민족주의 시기의 운동회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에서 운동회는 1895년에 시작되었다. 초창기 운동회는 서울의 관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실시되어 분명한 사회 현상이 되었다. 1895년부터 1899년까지 운동회는 《독립신문》 등에 일 년에 1-6회 정도 실시된 기록이 있고, 1900년부터 1904년까지는 사실상 공백기였다. 그러나 1905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그해 2회, 1906년 39회, 1907년 59회, 1908년 110회, 1909년 71회, 1910년 41회가 기록에 등장한다.¹⁾

구한말 운동회는 여러 기능을 했는데 정치사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운동회를 민족주의와 연결시킨 경우가 많았다.²⁾ 대표적으로 이학래의 견해를 예로 들어보자. 이학래는 우선 구한말 운동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운동회는 첫째, 조선의 붕괴된 향촌공동체를 대체할 질서가 없던 과도기에 공동체의 기능 일부를 담당했고, 둘째, 민족적 위기 상황을 맞아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자주독립을 강조하는 마당이었으며, 셋째, 근대체육 보급과 사회체육의 공간이었다.³⁾ 이학래는 운동회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해 1890년대 후반과 1905년 을사조약 이후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1890년대 후반에는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실현할 전망이 있었기에, 운동회에서 상징적 조치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정도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운동회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단순히 운동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권회복을 주제로 하는 연설회도 열렸음을 지적한다.⁴⁾ 그는 이 시기 전체를 통틀어 운동회의 성격을 일관되게 민족주의적으로

1) 통계 수치는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팽창: 그 실태와 동인」, 『한국교육사학』 제33권 1호(2011), 9쪽을 인용하였다. 운동회 연구가 체육을 포함한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이 통계에는 대표적으로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운동회 개최 횟수가 제외되었다.

2) 이학래, 『한국체육사연구』(국학연구원, 2003); 김현숙, 「대한제국 운동회의 기능과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2010); 심승구, 「한국의 근대 스포츠와 여가의 탄생」, 『한국학논총』 제34집(2010); 백원철·조영웅, 「대한제국기 체육교육정책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0권 1호(2012). 한편 박상석의 경우 구한말 운동회를 '애국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구한말 운동회를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기존 연구에 반박하며 애국주의를 주장했는데 엄밀하게 두 개념을 구분한 것인지 의문이다(박상석, 「구한말 운동회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63쪽).

3) 이학래, 위의 책, 259-261쪽.

4) 위의 책, 295-296쪽.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천정환이 지적하듯이 1907년 서울에서 열린 관공사립 연합운동회에서 “조선 청년·학생들의 무와 충을 고취하기 위한 운동회에 제국의 통치자들이 참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였다.⁵⁾ 이 시기 운동회에 대한 제국의 황태자뿐 아니라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주둔군사령관이 참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운동회를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1905년 이후 서울에서 열린 정부 주도의 운동회와 지방에서 지역민들의 열의에 의해 열린 사립학교의 운동회를 구분하여 지역의 사립학교 운동회에 주목한다.⁶⁾ 하지만 이런 지방의 사립학교 운동회들 중에 일본인이 도움, 참여 혹은 감시의 형태로 참여한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하기 어렵다.

구한말 운동회의 성격을 민족주의의 틀에서 볼 경우 위에서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난다. 하지만 한국 민족주의가 구한말 운동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다. 즉, 이학래의 주장처럼 운동회가 원래 민족주의적이었는데 1905년 이후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대국가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족주의는 서구의 이론이자 이데올로기였고⁷⁾, 양계조를 통해 한국에 전해져서 을사늑약 이후 통용되기 시작하였다.⁸⁾ 그러나 민족주의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에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존재했고, 민족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서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자주와 독립 그리고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의 평등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한 민족보다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요구한 대한제국의 근대화 개혁은 대내적인 면에서 민족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사후적 해석이겠지만 민족주의가 쉽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은 민족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거나 구한말에 다져졌다고

5) 천정환, 『끝나지 않는 신드롬』(푸른역사, 2005), 95쪽.

6) 백원철·조영웅, 앞의 논문, 27쪽.

7) 이용희, 「민족주의의 개념」,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민음사, 1983), 213-221쪽.

8) 장규식, 「20세기 전반 한국 사상계의 궤적과 민족주의 담론」, 『한국사연구』 제150호 (2010), 275쪽.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한말 운동회와 민족주의를 연결 지을 때는 민족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운동회를 누가 계획하고 주도했는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한말 운동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으며 주로 체육학과 교육학계에서 나왔다. 운동회는 한국에 스포츠가 최초로 도입되는 통로 중 하나로 기능한 측면이 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라는 한국의 조선시대까지의 전통과는 이질적인 제도이자 공간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체육학과 교육학계에서 주목했던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자신이 속한 학계의 시각에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여 당시 운동회에 대한 세부적 사실들을 거의 대부분 밝히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글은 운동회의 여러 측면 중 민족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1895-1899년의 관 주도 운동회

1. 최초의 운동회: 을미의숙(乙未義塾)

1895년의 시점에는 우리가 운동회를 말할 때의 ‘운동’이라는 개념도 새로운 것이었고, 운동회라는 현상도 유례가 없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운동회를 분명하게 규명한 이후에야 구한말 운동회의 성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운동회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1895년 5월 12일(음력 4월 18일)에 있었던 을미의숙의 것이 최초임이 확인되었다. 『속음청사(續陰晴史)』에 따르면 그 자신이 을미의숙의 설립의 주체이기도 했던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이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부는 오후, 을미의숙 6곳 학도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운동회가 훈련원에서 개최되어 보러 갔다.⁹⁾

최초의 운동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손환과 박상석의 연구가 나오기

9) 손환·박상석,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6호 (2009). 최초 운동회 논란은 《독립신문》 기록 속의 운동회와 ‘화류’의 혼동 가능성 그리고 명칭이 운동회가 아닌 행사에서 ‘운동’을 했다는 기술 때문에 발생했다.

전까지 정설처럼 여겨진 1896년 배재학당이나 관립영어학교의 화류가 아니라 을미의숙 운동회가 최초가 되면서 초기 운동회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재학당은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실제 ‘운동회’를 개최한 기록이 없고 다만 당시로서는 유사한 행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류’ 혹은 ‘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독립신문》에 나타날 뿐이다.¹⁰⁾ 1896년 5월 2일의 관립영어학교 화류회를 최초로 본다면 그 학교에 재직했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한국의 초창기 운동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¹¹⁾ 즉, 배재학당이나 관립영어학교 기원설은 한국 운동회의 기원이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¹²⁾

그러나 일본의 강한 영향하에 설립된 을미의숙이 최초 운동회 개최지로 확인되며, 한국 운동회가 처음부터 일본에서 전달되었음이 확인된다.¹³⁾ 이나바 쓰기오(稻葉繼雄)와 김경미에 따르면 을미의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나바는 을미의숙이 “외무아문 주사 현채(玄采)를 형식상의 설립자, 아유가이 후사노신(點貝房之進)을 실질적인 교장으로 1895년 3월에 개설된 학교”이며, 사립 명의였으나 실제로는 관립소학교였고, 조선 청년에게 일본어 및 보통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¹⁴⁾ 이에 대해 김경미는 을미의숙을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가 설립·운영한, 민간인에 의한 사립학교인 동시에 일본인이 교육을 전담하고 일본어를 가르친 일어학교로 파악하고 있다.¹⁵⁾ 을미의

10) 구한말에 배재학당이 ‘운동회’를 했다는 기록은 정부나 군주가 거의 강제로 동원한 1907년 10월의 연합운동회와 1908년의 비원운동회 두 번밖에 없다. 《황성신문》, 1907년 10월 27일자, 1908년 5월 23일자.

11) 대표적으로 김성학이 허치슨의 선구적 역할을 부각시킨 바 있다. 그래서 김성학은 한국의 운동회 도입사에서 영국인의 역할과 영국적 전통의 흐름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 운동회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측면에 대한 해석이 취약해졌다.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1권 1호(2009), 57-94쪽.

12) 한국 운동회 역사에서 미국과 영국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학생들이 배재학당이나 관립영어학교에서 미국인 혹은 영국인의 지도로 체조를 배운 것이나 근대 스포츠가 이들 학교를 통해 도입된 부분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사실이며 체조와 근대 스포츠는 운동회의 종목이었다.

13) 한국 운동회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인정한 연구는 황의룡과 김필승의 것이 유일한 경우로 보인다. 황의룡·김필승,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와 운동회에 대한 비교 연구: 1876년-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2호(2011), 15쪽.

14) 이나바 쓰기오 저, 홍준기 역,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온누리, 2006), 31-32쪽, 251-252쪽.

숙은 1895년 3월에 설립된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분교를 포함하여 7개가 된다.

두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을미의숙이 일본어로만 교육된 학교이며 학교의 교사들이 을미사변에 직접 참여한 점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경미는 을미의숙을 통한 일본의 ‘교육침략적’ 의도를 지적했고, 이나바도 교사 요사노 텃칸(與謝野鐵幹)이 스스로를 조선에 일본문화를 이식하는 개척자라는 의식이 강한 점을 들어 을미의숙에 일본의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했다고 주장한다.¹⁵⁾

이렇게 형식상 한국 정부 혹은 온건개화파가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이 교장, 교사로 재직하며 침략적 의도를 갖고 교육을 실시한 을미의숙에서 한국 최초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그 운동회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체조는 내지에서 당시 하고 있던 전부를 가르쳤는데 대단히 환영받았다”는 언급¹⁷⁾과 이미 같은 시기에 일본에는 운동회 문화가 정착한 점 등을 감안하면 1895년 시점 일본의 운동회와 형식적으로 유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895년 6월 6일, 독립경회(獨立慶會)라는 왕실 행사에서 을미의숙의 학도들이 독립가를 불렀다고 언급되어 있는데¹⁸⁾, 이후 운동회들에서 종종 애국가가 제창된 관행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을미의숙 운동회는 1895년 5월 9일 을미의숙의 일본인 교사가 운동회의 기부금을 얻기 위해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박정양의 집을 찾아갔다가 무례한 태도를 보여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⁹⁾ 을미의숙 운동회는 비록 동일한 이름이지만 7개 정도의 학교가 연합하여 3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대규모였으므로 학교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학교연합 형식이 많았던 구한말의 운동회는 많은 경우 기부금을 통해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운동회라는 행사를 한국

15) 김경미, 「을미의숙의 성격 규명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사학』 제20집(1998), 256쪽.

16) 이나바 쓰기오, 앞의 책, 254쪽. 요사노 텃칸은 일본 문법과 일본 창가를 가르쳤는데 그가 부른 노래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잘 알아주시오. 지금 일본 글을 조선에 가르친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 한국의 산에 벚꽃을 심고 한국인에게 일본 남아의 노래를 부르게 하자.”

17) 김경미, 앞의 논문, 249쪽.

18) 〈日本〉, 1895년 6월 18일(김경미, 앞의 논문, 249쪽에서 재인용). 이 독립가는 창가로 내무협관 유길준이 지었으며, 을미의숙 교사가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일본에서는 흔히 운동회 때 창가를 불렀다.

19) 『구한국의외교문서』 제3권, 日案 3, 문서번호 3601, 3602.

측 관리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시 김윤식과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이에 교환된 문서들은 5월 12일 운동회가 실시된 이후인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작성되었지만 김윤식이나 박정양은 운동회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이노우에를 비롯하여 일본인 교사, 한성 일본영사는 모두 ‘운동회’를 언급하며 통역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에서 운동회를 체험한 일본인 관리와 교사가 운동회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 반면 현실 속에서 운동회를 처음 접한 한국의 김윤식과 박정양은 사고와 언어 차원에서부터 운동회라는 개념, 단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동회는 일본인에 의해 한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단어로써 성립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운동회라는 말이 한국의 문서들 속에서는 처음 등장한 이후 다른 유사 단어와 크게 혼동·혼용되지 않으면서 정착될 수 있었다.²⁰⁾

을미의숙 운동회는 을미의숙의 교육을 담당한 일본인 교사들의 일본 국가주의 성향과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속성을 감안하면 일본 근대교육 시스템 일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봐야 한다. 일본에서는 1890년을 전후해 운동회가 전국의 소·중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치르는 연중행사였고, 특히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이 전국적으로 운동회가 중요한 학교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²¹⁾ 그리고 근대학교 및 근대교육 형성의 역사에 대한 김정미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을미의숙에서 나타난 교육침략적 성격은 하나의 학교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895년 조선의 교육개혁 목표와 정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일본 간섭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²²⁾

그렇다고 해서 을미의숙을 통해 시작된 운동회가 일본에서 개최된 것처럼 제국의 길로 가는 군국주의적 의미와 동일할 수는 없다. 조선 왕실 혹은 개화파는 단순히 일본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20) 운동회의 다른 명칭으로 일본에서는 경투유희회, 체육강습회, 체육회, 경기운동회, 체육장려회, 소풍, 행군, 꽃구경 등이 있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형태상 구한말에 화류(회) 정도가 유사한 행사였다. 한국에서는 나중에 경기회, 운동경기회, 육상경기회 등이 혼용되었지만 학교 행사 측면으로서만 본다면 운동회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21) 요시미 슌야, 「국민 의례로서의 운동회」, 요시미 슌야 외 저, 이태문 역, 『운동회: 근대의 신체』(논형, 2007), 24-25쪽.

22) 김정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해안, 2009).

현실적 목표 때문에 을미의숙과 같은 외국어학교를 설립했고²³⁾, 이런 공간에서의 운동회가 독립을 추구하는 국가에 의해 실시되고 개화지식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일본 측의 적대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운동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운동회라는 형식을 빌려올 때 그 제도의 속성과 의미 중 보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의 운동회와 한국의 운동회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성이 많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영향하에 진행되었으나 조선 측의 주체적 노력이 공존했던 갑오개혁의 복합적 성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2. 관공립학교 운동회

을미의숙이 1895년 7월 소학교령에 의해 관립소학교로 전환되면서 을미의숙이라는 명칭은 단명에 그친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확인되는 바로 다음 경우가 1896년 5월 관립소학교인 것을 보면 을미의숙의 운동회는 이후 한국의 운동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을미의숙에서 운동회가 최초로 개최된 이후 일년을 맞이하여 연례행사로서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²⁴⁾ 5월 30일 삼선평에서 열린 이 운동회에는 정부 고관들과 교사들이 참석했고, 운동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애국가를 불렀다.²⁵⁾ 일 년 전의 운동회를 외부대신 김윤식이 관람했고, 비록 운동회가 아닌 독립경회에서였지만 을미의숙 학생들이 독립가를 불렀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²⁶⁾ 이렇게 구한말 운동회는 처음부터 국가적 행사였고, 애국가와 같은 민족주의 운동의 전형적인 형식이 담겨 있었다.

23) 예를 들어 김윤식은 일본어교육을 통해서 당장 필요한 통역 등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근대학문과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부국자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학교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김경미, 앞의 논문, 256쪽.

24) 관립소학교는 일어학교가 아닌데도 일본어를 가르쳤다. 즉, 일본인 교사들이 있었으므로 을미의숙과의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 한편 일본인이 만든 사립학교인 경성학당의 1897년 운동회가 그 학교의 개교 일주년을 기념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독립신문》, 1897년 4월 13일자.

25) 《독립신문》, 1896년 6월 2일자.

26) 김현숙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독립가, 애국가 등의 보급을 에릭 홉스봄의 ‘전통의 발명’ 차원에서 파악했다. 김현숙,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2005), 122-128쪽.

이 운동회에서 어떤 ‘운동’이 실시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 5월 30일자에는 관립소학교 운동회를 “picnic”으로 표현하였고 “athletic exercise”와 여타 ‘스포츠’가 있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운동회가 실시된 이후인 6월 4일자에서는 여러 형태의 체조(calisthenics)를 비롯한 ‘훈련(drill [exercisel)’이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달리기 시합과 같은 경쟁적 운동은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에 최초의 운동회로 간주되었던 1896년 5월의 관립영어학교의 화류에서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The Independent*에 따르면 그 운동은 유사 군사훈련이거나 병식체조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또한 관립소학교 운동회 직전 관립영어학교 학생들이 아관파천 중인 고종 앞에서 새 ‘군복’을 입고 ‘조련’했음²⁸⁾을 감안하면 한국의 초기 운동회는 군사훈련과 유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²⁹⁾ 운동회 혹은 학교교육의 군사적 성격은 서구 근대국가의 영향을 받았다.³⁰⁾ 그러나 초기 운동회의 이런 면모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격 중 군사적 속성이 현저하게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³¹⁾

관립소학교의 연합운동회는 1899년까지 매년 봄에 개최되는데 1897년의 운동회가 《독립신문》에서 상세히 설명된다.³²⁾ 학부대신 민중목을 비롯한 관리, 한성 관윤 이채연, 일본인 교사, 독립신문 사장 서재필 등이 주요 내빈이었다. 운동회가 열린 훈련원은 국기와 학교기들로 장식되고, 종목은 체조와 달리기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른 점은 이전과 동일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1880년대에 운동회가 학교의 주요 행사로 정착할 때 천막, 국기, 만국기가 필수품이 되고, 칩어봉독과 기미가요 취주합창이 거행되는 등 국가행사의 성격이

27) 《독립신문》, 1896년 5월 5일자; 영국 군인 두 명이 영어학교 학생들을 7주 정도 가르쳤고, 화류 때는 한 시간 정도의 훈련을 실시했다. *The Independent*, 1896년 5월 5일자.

28) *The Independent*, 1896년 5월 26일자.

29) 1897년 영어학교의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총을 메고 연병장(훈련원)에 입장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은 총으로 하는 훈련이 가장 흥미롭고 잘 되었다고 기록한다. 《독립신문》, 1897년 6월 19일자; *The Independent*, 1897년 6월 19일자.

30) “This is a branch of school training which has been found of great value in western countries, and is carefully cultivated in every school which claims to be of any importance.” *The Independent*, 1896년 5월 5일자.

31) 예를 들어 1899년 4월 29일의 운동회에 군악대가 왔는데, 이에 대해 당시 신문은 “군악대를 청하여 풍악을 치며 질탕하게 놀고 들어왔다더라”고 평가했다. 군사적 성격이 운동회에서 놀이로 치환되거나 헛갈리게 된다. 《제국신문》, 1899년 5월 1일자.

32) 《독립신문》, 1897년 4월 29일자.

질었는데³³⁾ 그 형식이 그대로 한국에 이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를 대표하는 민중목이 운동하는 학생들을 보며 “국가에 다행한 일”이라 말하고, 서재필은 운동회장을 조선 국기로 단장한 것은 조선이 “세계에 자주 독립하는 것을 보이지는 뜻”이라 설명하고, 서울 소재 일본인 소학교 교장 하야카와(早川清範)가 조선이 교육에 힘쓰는 것은 나라가 되어갈 징조라고 연설하는 장면들이다. 이로써 운동회는 도입되어 몇 번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왕으로 상징되는 국가와 미국 교육을 받은 개화지식인 그리고 제도를 직접 전수한 일본인의 마음까지 모두 흡족하게 만드는 행사가 되었다.

《독립신문》이 최초로 운동회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은 1897년 관립소학교 운동회보다 먼저 개최된 1897년 4월 11일 경성학당의 운동회다.³⁴⁾ 경성학당은 관공립이 아니라 일본해외교육회에서 만든 사립학교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될 즈음 일본해외교육회의 회장에게 “일본인의 사업으로 진짜 성공한 것은 경성학당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높게 평가했던 곳이다.³⁵⁾ 1896년 주한 공사였던 고무라는 일본 본국에 경성학당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하면서 이 학교가 한국인의 교육을 돕는 목적뿐 아니라 일본의 “대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치적 변동이 심한 한국에서 일본의 세력을 유지 신장하기 위해 경성학당과 같은 교육사업이 극히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성학당의 당칙 제9조는 계절에 따라 쾌활한 운동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기적인 운동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³⁶⁾

학교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게 이날의 운동회에는 조선 정부 고관은 물론 일본 공사, 일본 육해군 장교, 거류지 일본인 등이 초청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달리기, 체조, 기타 운동, 노래가 행해졌고, 이후 교장, 일본 공사, 외부대신 이완용의 연설이 이어졌다. 연설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경성학당은 일본의 자본으로 설립되었으나 일본어뿐 아니라 국한문, 수학, 역사, 지리를 가르쳤다. 또 일 년 만에 학생이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일본어에 대한 당시 조선인의

33) 요시미 순야 외, 앞의 책, 25쪽.

34) 《독립신문》, 1897년 4월 15일자.

35) 이나바 쓰기오, 앞의 책, 122쪽.

36) 경성학당에 대한 보조금 교부요망 건 상신, 『주한일본공사관기록』 9, 187-194쪽.

관심이 높았던 점이 드러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공사 가토(加藤增雄)의 연설인데 그는 일본이 왜 자신들의 돈을 들여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속내는 감춘 채 조선인이 일본어를 배울 때의 장점을 부각시킨다.³⁷⁾ 무엇보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학문을 하는 것으로 외국어를 통해 외국 사정을 많이 알수록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완용은 운동회의 가치를 조선 사람에게 부족한 승부욕을 기르는 것에서 찾는데, 이는 이후 다른 기사에서 《독립신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³⁸⁾

1897년에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운동회 이후 6월에 관립영어학교의 운동회도 개최된다. 이 행사는 영국 공사관 직원 윌리스를 비롯한 터너, 허치슨, 헬리팩스 등의 영국인이 대회를 관리했기에 일본인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 《독립신문》은 300보 달리기, 공 던지기, 높이뛰기 등 운동종목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학생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상품까지 설명했다.³⁹⁾ 이 상품들은 조선인과 외국인 친구들이 돈을 모아 상해에서 사온 것이었다. 기록상 이 운동회가 상품을 준 최초의 경우인데 운동회 상품은 이후 운동회에서 학생들의 동기부여 수단이자 개최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대군주 폐하를 위해 만세를, 학교 선생과 손님들을 위해 천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 운동회는 4월의 관공립소학교 운동회와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치고 초청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구경하게 되어 있으나 《독립신문》은 울타리 밖에서 운동회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며 그 의미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놓치지 않았다. 운동회의 교육적 효과와 재미는 《독립신문》의 지면을 통해 홍보되었고, 가까운 거리에서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사람에게마저 큰 의미를 가지는 혹은 가져야만 할 것으로 포장되었다.

한국인들에게 운동회의 의미를 해석해주던 《독립신문》이 운동회에

37) 심지어 가토 공사는 경성학당 학생들이 일본말을 배워 향후 한국이 일본과 싸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한다. “경성 학당에 있는 학도들이 학당에 드러 올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온거니즉 그 목적들은 [...] 혹은 일본말을 알아 일본 소정을 아는 고로 혹은 조선과 일본이 싸움이 되거드면 일본 소정을 아는 식됨에 일본 사람과 싸움을 잘 하야 일본을 쳐부술 확적을 생각 하라고 온 사람도 있슬지라.”

38) 《독립신문》, 1897년 6월 19일자. “학교 학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대운동회를 하여 세계 인민에게 조선 사람의 진보하고 활발하고 승벽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은 나라 사기에 처음 일이라.”

39) 《독립신문》, 위의 기사.

가장 크게 개입한 것은 1898년의 관립외국어학교 연합운동회의 경우다. 5월 28일에 열린 이 운동회의 비용은 학도들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독립신문》은 4월 7일부터 광고 지면을 이용해 독자들에게 운동회에 보조금을 낼 것을 계속 권유했다. 보조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을 낼 경우 초청장을 줄 것이고, 만약 돈이 남으면 빈민 구제에 사용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 보조금 징수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운동회 날 “전국 남녀노소 수만 명”이 운동회장을 사방으로 둘러싸 장관을 이루었고, 개인 경기 위주였지만 각 외국어학교들이 색띠를 통해 구분되어 학교 대항의 의미가 부각되었다.⁴⁰⁾ 또한 이전 운동회처럼 시상식과 애국가 제창, 대황제 폐하 만세가 이어졌다.⁴¹⁾

운동회에 구경꾼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거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표현은 구한말 신문 기사의 상투적 표현이기 때문에, 《독립신문》의 이 기사에서 전국에서 온 “수만 명”이 운집했다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소개하며 행사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수용되기를 바라는 전달자인 언론사 혹은 행사를 기획하는 주체인 학부라는 정부기관의 기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기대는 학교를 통해 근대교육을 받아 개화 지식과 외국어를 익혀 나라에 도움이 될 인간, 국가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일 것이다. 실제 《독립신문》은 1898년 6월 11일 논설에서 운동회가 전통적인 유학 공부만 한 사람을 개화에 눈뜨게 만드는 자리라고 설명했고,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성을 강조했다.⁴²⁾ 충군애국의 ‘신민’ 만들기가 중시되었기에 민족을 강조하는 사상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고, 존재의 격이 다른 군주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운동회는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

40) 《독립신문》, 1898년 5월 31일자.

41) 《매일신문》, 1898년 5월 31일자.

42) 평등에 대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 구경 다 혼 후에 쏘 대신내 안즌 좌석을 보니 엽 즈리에 무슈혼 상인과 잡인들이 안저 후 담빅도 먹고 현화도 혼니 처음 보건딕 심히 괴상 혼것이 이전 ㄱ혼면 잡인이 근처에만 와도 청적이 별빅들이 휘축 하고 벽제를 훌터인딕 그역내 므음으로 히득 혼것이 사람이 세상에 나뭇 하늘이 스경이 업거늘 상하 귀천을 인곡에 판에 박아 협제홀 리치가 잇스리요 벼슬 혼면 귀하고 벼슬 못 혼면 천홀뿐이지 천혼 사람이라고 의례히 귀혼 사람의 하대 밧을 리는 아난즉 귀홀을 즈세하여 하대혼 사람은 그 벼슬문 씬적이 알아 교만지 심이 못 칭긴딕서 좃츠 나는 일이라 천혼 사람이라고 아니 지은 죄도 지은듯키 구축하여 안도 서도 못홀 일이 무엇이며 귀혼 사람의 혼는 말은 경계 맞기라도 디답 혼 마디 못 혼고 억탁으로 혼는 일이라도 썸적 습도 못 쉬는 일은 무엇이라 그는 그요 나는 나 되고 본즉 인소 서는것이 각기 데 일인딕 누가 상관 훌빅 잇스리요.”

폐지된 신분제를 통해 수천, 수만의 인과가 서로를 법률상 평등한 개인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기능할 수 있었다. 적어도 《독립신문》은 그렇게 기대했다.

이후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운동회는 1899년 외국어학교 연합운동회였다. 이때는 운동회 경비 자금이 부족하자 학부에서 내부 관리들로부터 미리 300원을 받아낸 후⁴³⁾ 신문 광고를 통해 ‘허입장’이나 ‘문표’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운동회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⁴⁴⁾ 운동회의 종목은 이전과 유사하고, 시상식을 한 후 애국가 제창, 대화제 폐하만세 등의 절차도 동일했다. 하지만 그전 해보다 폐쇄적인 관람 방식 때문인지 구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⁴⁵⁾ 또한 “일본 의학교사 고송매계씨가 위생 신문을 보조하고 일본 거류지에서 석필과 석판을 보조”⁴⁶⁾하였던 점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후에도 한국인 학생들만 참가하는 운동회지만 일본인이 상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제국신문》은 일본인의 상품 기부를 보며 “일인들의 권화하는 뜻은 이같이 장하더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⁴⁷⁾

같은 해 10월 인천의 일본 소학교의 운동회는 남녀 학생이 함께 여러 운동 종목을 겨뤘는데 “과연 찬란하고 기이”하여 산처럼 몰려든 내외국의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 않는 이가 없었다.”⁴⁸⁾ 즉, 일본 아이들의 운동회였음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들어 단순히 흥미를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운동회를 칭찬했다는 것이다. 운동회가 근대교육의 성과를 드러내는 자리이고 일본이 한국에 가르쳐준 행사인 이상 한국인은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새로운 종목이 일본인의 운동회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규율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운동회에 비하면 뛰어나게 보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1890년대 후반 한국의 운동회는 관 주도의 국가 행사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애국가 제창과 고종에 대한 만세가 운동회

43) 《황성신문》, 1899년 4월 14일자.

44) 《황성신문》, 1899년 4월 25-29일자; 《독립신문》, 1899년 4월 28일자; 《제국신문》, 1899년 4월 27일자.

45) 《독립신문》, 1899년 5월 1일자, 1-2쪽.

46) 《독립신문》, 1899년 5월 1일자, 3쪽.

47) 《제국신문》, 1899년 5월 2일자.

48) 《독립신문》, 1899년 10월 25일자.

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실시되었다. 운동장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입장권으로 작은 태극기가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고유의 상징체계를 통해 내적 단결을 꾀하는 민족주의적 행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운동회에서 민족 구성원의 평등이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고 특정한 외부의 적대국에 대한 대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열강의 언어를 해당 국가 출신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외국어학교들의 연합운동회에서 특정 국가에 저항하는 행태가 나올 수 없다는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회를 통한 정치적 메시지는 외세의 침략과 수탈에 대한 대응 부분이 사라진 채 서구적 근대화를 이제 막 시작하는 국가에서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체질을 바꾸고 진보를 추구하지는 내적인 개화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관립소학교 운동회가 먼저 시작되었지만 관립외국어학교의 연합운동회가 더욱 큰 행사로 여겨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학교 운동회는 상품으로 담뱃대와 담뱃갑이 수여될 정도로 성인으로 여겨지는 연령의 남성들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그리고 관립외국어학교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열강의 언어를 가르쳤다. 국가적으로 관립소학교보다는 외국어학교의 졸업생 배출이 더 시급한 실정이었고, 한국 학생들이 열강의 외국인 교사들로부터 직접 외국어와 학문적 지식을 배움은 물론 군사훈련과 신체단련의 정도까지 열강의 대표자들에게 보여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관립외국어학교의 연합운동회라고 할 수 있겠다. 고종은 외국어학교의 운동회가 실시되기 전부터 외국어학교의 학생들을 불러 체조, 운동, 군대식 행진을 시켜보고 상을 수여했다. 그 자리에 각국의 공사들도 초대되어 참관하고 있었다.⁴⁹⁾ 당시는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일국의 군주로서의 체면이 손상된 상황이었다. 외국어학교의 연합운동회가 국가적 행사로 여겨진 것은 외국어학교의 학생을 통해 문명화된 신민을 외국의 시선 앞에 전시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고종의 의도가 투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의도와 별개로 강대국들은 한국의 독립국으로서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야 할 것이다.⁵⁰⁾

49) 《독립신문》, 1896년 5월 28일자, 1896년 6월 25일자, 1897년 4월 15일자.

50) 「최근 조선 상황에 대한 조선주재 군부관 총참모부 대령 스트렐비츠키 보고문의 요약

3. 1900-1904년의 공백기

1899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운동회를 연 기록은 1905년이 되어야 나온다. 1900년부터 1904년 사이에는 인천 관립일어학교가 두 차례 단독 개최한 기록이 《황성신문》에 있을 뿐이다.⁵¹⁾ 김성학은 1900년부터 1904년 사이 공백기의 이유를 고종의 군주권 강화에서 찾는다. 원래 아관파천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드는 계획 안에서 관공립학교 운동회를 국민 만들기의 장으로 인식했지만, 1899년 8월 이후 고종이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자 더 이상 국민 만들기에 주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⁵²⁾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가 반포되며 고종의 절대군주권이 표방되고, 개화파 퇴진에 이어 독립협회 등 민권운동 세력마저 제압한 이후 실제로 군주권에 대항할 국내 세력이 사라졌으므로⁵³⁾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인 상황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립소학교와 외국어학교들이 운동회의 주요 실시자였던 상황에서 소학교들은 운영경비 부족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학부의 소학교 관련 예산도 갈수록 줄었다. 반면 정부는 외국어학교를 더 중시하며 예산을 갈수록 늘려 잡았다. 시대적으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소학교에 비해서 외국어학교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왕권강화 정책은 소학교의 수입원을 빼앗아 지방군의 예산으로 이전시키며 소학교 위축을 부추겼다.⁵⁴⁾ 그렇다면 인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국어학교들이 서울에만 설치되어도 상관없는 것에 비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 설립, 운영되어야 할 소학교들이 확산·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회가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함은 물론 원래 시작 지점인 서울에서도 실시되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성학은 운동회가 급속히 한국에 자리 잡게 된 이유를 국가 차원의

내용(1897년 1월 10일, 서울)』, 이원용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III-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선인, 2011), 46-48쪽.

51) 《황성신문》, 1900년 5월 18일자, 1902년 4월 28일자.

52) 김성학, 앞의 논문(2009), 68쪽, 90쪽.

53)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66-67쪽.

54) 김경미, 앞의 책, 185-193쪽.

인위적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회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경쟁하고 성과에 따라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⁵⁵⁾ 조선이 체육에 해당할 체양(體養)을 정신적 가치인 지와 덕과 같은 비중으로 삼은 것은 1895년 교육입국조서⁵⁶⁾를 통해 처음 생긴 일이다. 그런데 그해 한국에서 최초로 운동회가 열리고, 2년 후부터 3년 연속 관립 학교들의 연합운동회 형식으로 국가적 행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참여자인 학생과 관객인 국민들의 호응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운동회에 개재된 평등성의 잠재적 의미를 국민들이 눈치챘을 가능성은 있다. 관객 대부분은 앞서 《독립신문》의 유학자처럼 갑자기 개화에 눈을 뜨지는 못했겠지만 국민들이 반응했다는 것, 그리고 1905년 이후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 운동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은 《독립신문》이 기대했던 운동회의 교육적 효과가 위력을 발휘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민족주의의 훌륭한 토대다.

그러나 운동회라는 제도의 효과는 한국에서 국가와 언론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입증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개화지식인도 운동회를 쉽게 받아들인 것이지 이질적 제도를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수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김성학은 한국 운동회의 기원에서 관립영어학교의 허치슨과 영국적 전통을 강조했고, 그러한 영국적 맥락의 중요성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운동회라는 형식은 일본의 산물이다. 영국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끼친 영향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다.

55) 김성학, 앞의 논문(2009), 90쪽.

56) 김경미는 교육입국조서가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용어지만 '교육에 관한 조칙'이 올바른 용어라고 주장한다. 김경미, 앞의 책, 132-133쪽.

III. 1905-1910년, 민족주의 시기의 운동회

구한말 운동회 전체를 민족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기존 연구에서도 을사조약이 있었던 1905년부터 1910년의 운동회를 1890년대의 운동회에 비해 민족주의적 성격이 현저히 증가한 행사로 간주했다. 개최 횟수가 급증했고, 개최지가 지역적으로 서울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각도에서 나타났으며,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사회 일반의 민족주의 흐름과 일치한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는 을사조약, 고종 퇴위, 군대해산 등을 통해 갈수록 분명해졌다. 국권이 실추되고 국가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족’이라는 언어가 유포되고 강조되었으며 민족이 정치적 운명공동체의 현실로 떠올랐다.⁵⁷⁾ 구한말의 운동회도 사실상 무의미해진 황제권을 위한 구호 이외에 더욱 다양해진 목표를 위해 개최되었다. 이 시기의 많은 운동회가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궁궐에서 수차례 열린 관리들의 운동회나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의 운동회처럼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즐기기를 위한 행사로 소비되는 경우도 늘어갔다.

1. 서울의 관공사립학교 연합운동회

학부에 의한 연합운동회는 1905년 5월 관공사립소학교 연합운동회로 부활한다. 초청된 내빈은 각부 대신, 협관을 비롯한 고위관료와 각국 공영사, 학교 교장과 교사 그리고 각 신문사의 사장이다.⁵⁸⁾ 1899년까지와 다르게 사립학교가 포함되었고, 학생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모든 정부 고위관료와 주로 한국에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인 외교관들과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들 그리고 운동회를 평가하고 신문을 통해 널리 전파할 신문사의 사장들이 필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학부에서 소학교 어린아이들의 운동 경기 모습을 통해 여전히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메시지는 러일전쟁

57) 강동국, 「근대 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2005), 24쪽.

58) 《황성신문》, 1905년 5월 12일자.

의 와중에 국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1899년까지와 마찬가지로 운동회를 통해 그간 이룬 근대교육의 성과와 한국이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열강에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후 마찬가지로 훈련원에서 열린 동일한 성격의 운동회는 시상식 과정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학부에서 등수를 착각하거나, 선수의 이름의 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품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⁵⁹⁾ 이 운동회는 치르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었고, 이듬해의 연합운동회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1907년 5월 3일 《황성신문》에는 새롭게 열릴 관사립보통학교 춘계 연합대운동회의 순서와 과목 그리고 주의사항이 상세히 보도된다. 한편 그해 가을에 열린 연합대운동회는 일본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관광하기 위하여 열리기로 하면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⁶⁰⁾ 결국 일본 황태자가 빨리 귀국하면서 운동회에 불참하게 되지만⁶¹⁾ 곧 동궁, 즉 대한제국의 황태자가 참석할 것이라는 발표가 난다.⁶²⁾ 서울에서 열리는 관립학교 운동회에 정부대신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군주에 해당할 최고 권력이 참석한 예는 없었다. 그러나 황태자의 참석으로 유례없이 격이 높아진 운동회는 황태자에 이어 거의 같은 비중으로 등장하고 참석하는 이토 통감의 존재에 의해 애매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황제 고종은 불참했으나 체육을 권장하고 협동하는 덕성을 함양하여 운동회에 참석한 이들이 전국에 모범을 보이라는 칙어를 내렸다. 또 황태자가 마차를 타고 각 학교를 돌며 관람할 때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연창하기도 했다.⁶³⁾ 그러나 칙어를 통한 국민체육 권장과 황태자를 향한 환호는 조선의 실제 지배자가 된 통감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졌다. 운동회의 조직위원회는 외견상 한국 관리들이 중심이었으나 모든 부문에서 일본인 담당자가 개입하고 있었다.⁶⁴⁾ 그리고 하세가와 대장은 100원을 기부했다.⁶⁵⁾ 이 운동회는

59) 《황성신문》, 1906년 5월 1일자.

6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8일자.

6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3일자.

6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0일자.

63) 《황성신문》, 1907년 10월 27일자.

64) 《황성신문》, 1907년 10월 23일자.

65)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9일자.

시작부터 일본 황태자가 구경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민족주의적이지 않을 뿐더러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일본인들이 위세를 보인 행사였다.

고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순종은 1908년 봄의 관사립학교 연합대운동회에서 이전 해처럼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참석한다.⁶⁶⁾ 또 운동회 명칭에 ‘경성’이 추가되는 변화가 생기며 지방학교의 참석이 금지된다. 전부터 인천, 강화 등지의 학교가 참석하고 있었고, 다른 지방 학교들의 참석을 굳이 막지 않았는데 이번부터는 그런 경우 운동회의 참가자가 아닌 관광객으로의 입장만 허락했다.⁶⁷⁾ 오직 서울에서 열리는 운동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한 지방 학교에게 구경만 하라는 명령은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매년 관사립학교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예정에 없는 지방 학교를 더해 운동회의 복잡한 일정을 재편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황태자가 절반 이상의 참가자에게 상품을 나누어주었던 1907년 가을의 사례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뒤에 설명할 경기도 사립학교 연합운동회의 민족주의적 분위기도 이 학교들의 참여 금지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열린 정부 주도의 연합운동회는 태극기, 애국가, 만세처럼 형식적으로 민족주의적 상징들을 간직했지만, 실제로는 갈수록 일본 통감부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민족주의 측면에서는 형식만 있고 실질은 없는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열린 다른 종류의 운동회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회에서 “대황제 폐하 만세 황태자 전하 천세 기독교청년회 만세” 삼창이 있었고⁶⁸⁾, 관립한성고등학교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황제에 대한 만세와 별도로 “성천자의 은덕으로 문명교육 받았으니 [...] 동포형제 일체되던 당당대한독립국이 세계상에 제일되네 [...] 만세만세만만세는 대황제폐하 만만세오, 천세만세억만세는 대한제국억만세오, 만세천세천만세는 고등학교천만세라”는 운동가를 불렀다.⁶⁹⁾ 서울의 11개 사립학교 운동회⁷⁰⁾와 휘문의숙의 운동회⁷¹⁾에서도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부에서

66) 《황성신문》, 1908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5일자.

67) 《황성신문》, 1908년 5월 15일자.

68) 《황성신문》, 1906년 6월 13일자.

69) 《황성신문》, 1906년 10월 29일자.

70) 《황성신문》, 1906년 10월 30일자.

1907년 4월에 전국의 학교에 충군애국의 뜻이 담긴 통일된 운동가를 보급했던 것을 보면 일본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 최소 1907년까지는 운동회를 군주 중심의 근대국가 만들기 계획의 일부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⁷²⁾

이 시기에 주목할 유형의 운동회는 여학교 연합운동회다. 예를 들어 1907년 5월 장충단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7개 여학교의 236명 학생이 운동을 했는데, 이는 “개국 이래 초유한 일대 성황”이었고, 관공남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⁷³⁾ 여학교는 이미 19세기에 한국에 설립되었으나 이화학당에서의 체조교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학교도 아닌 여러 여학교가 연합하여 수많은 관객 앞에서 과격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심지어 권장되었다. 근대학교의 학생이 장차 국가와 민족을 선도할 재목이 될 것이 기대되었는데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이 증가하는 현상은 운동회에서도 목격되었다. 운동회가 일종의 교화 장소이기도 했기에 여학교 운동회는 사회와 민족의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 전국에서 일본의 통제가 가장 엄격했을 서울에서의 운동회였기 때문에 한국 민족의 일꾼으로서의 여성보다는 일본 제국의 잠재적 인력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⁷⁴⁾

2. 지방의 사립학교 중심 운동회

지방의 운동회 열풍에 대해 기존 구한말 운동회 연구들은 사립학교에서의 운동회 횡수가 증가된 점에 주목하지만 애초에 사립학교 수 자체가 왜 늘었는지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았다. 즉, 을사조약 이후 국권이 사라질 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적 운동회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실시된 것처럼 이해하지만 만약 학교 자체가 없었다면 그런 운동은

71) 《황성신문》, 1907년 4월 15일자.

72) 1907년 8월부터는 학교의 체조를 일본 병사가 문제 삼았다거나 평남관찰사가 학생들의 체조를 엄금하여 “일인에게 합당한 관찰사”라는 평가를 받는 등 일본의 단속이 심해진 상황들이 보인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8일자, 1907년 8월 30일자.

73) 《황성신문》, 1907년 5월 27일자.

74) 윤건차는 일본이 “한국의 여성교육을 어디까지나 동화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민족적 주체성의 말살에 최종 목표를 두었다”고 평가한다. 윤건차 저, 『교육출판기획실·심성보 공역,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청사, 1987), 310쪽.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1907-1910년까지 운동회의 시대가 전개된 것은 이 시기가 ‘학교 설립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는 학회와 같은 사회단체들의 교육운동이 있었다. 교육운동을 통해 새로운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이 학교들의 연합운동회는 더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는 자리이자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로 기능했다. 학회들은 운동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내빈으로 참석하거나 교육을 권장하는 연설을 했다.

윤건치는 애국계몽운동이 내정개혁과 자유민권을 주장했던 독립협회운동을 계승하여 더 발전시킨 구국운동이라고 설명하며,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해 교육계몽운동·국문운동·여권운동·국채보상운동·식산홍업운동·지방자치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말한다.⁷⁵⁾ 러일전쟁을 거치며 사회단체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어, 진명회, 공진회, 헌정연구회 등이 활동하고 이어 대한자강회가 창립되며 본격화된다.⁷⁶⁾ 백동현은 러일전쟁보다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 독립협회가 해산될 무렵부터 이미 군권보다 민권을 강조하고 군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되기 시작되었으며, 독립협회의 경험이 국가 속에서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무력했던 황실이나 정부보다 국민을 국가 흥망의 원동력으로 보고, 사회단체를 통해 국민의 단합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⁷⁷⁾ 그러므로 1904년 이후 본격화된 사회단체의 설립과 그들의 애국계몽운동은 국가보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되어갔고 전국의 운동회 열기는 그 흐름의 일부로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운동회는 애국계몽운동의 부분들인 교육계몽, 여권, 지방자치 등의 목표와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당시의 민족주의가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강자가 되기 위한 경쟁과 진보를 강조한 반면 강자의 침략에 대항하는 논리가 아니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고⁷⁸⁾, 운동회를 통한 민족주의의 한계이기도 했다.

운동회가 서울 다음으로 많이 실시된 곳은 경기도와 평안도이다.⁷⁹⁾

75) 위의 책, 269쪽.

76) 위의 책, 270쪽.

77) 백동현, 『대한제국기 민족담론과 국가구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110-119쪽.

78) 장규식, 앞의 논문, 279쪽.

《황성신문》은 평안도의 교육열을 운동회를 통해 확인하는데, 우선 평안도가 전국에서 가장 교육 정도가 빨리 발전했으며, 학교 설립과 학생의 흥기에서도 전국 제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을지문덕과 양만춘이 자라나 “동양반도의 신선한 문명국을 조성”할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대한민족(인용자 강조)”이니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평안도를 본받을 것을 권장한다.⁸⁰⁾ 육상운동이나 유희에 불과한 운동회 종목을 통해 또 근대 교육을 통해 군사지도자인 을지문덕과 양만춘의 후예가 육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논설의 내용 혹은 당시 지식인들의 기대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가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동회를 통해 외적을 물리친 대표적인 무장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문명국’을 세울 새로운 인간 탄생을 기원하는 장면은 신체와 정신의 동시적 근대화를 추구한 운동회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며, 특히 한국의 “이천 년” 역사를 더듬고 전설적인 무장(武將)들을 소환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측면이다. 한편 평안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뿐 아니라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운동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만큼 열성적이었는데, 1907년 삼성평에서 열린 서북학생 연합운동회에서는 안창호가 학업을 권하는 연설을 하였다.⁸¹⁾

경기도 지역에서 사립학교들의 연합운동회는 또 다른 사립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⁸²⁾ 이동회의 경우 위병전쟁 지원뿐 아니라 육영사업도 중시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관내 사립학교의 운영·유지에 힘썼다. 그리고 서울에서 먼 강화도 지역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는데, 인천·통진·개성 등지의 학교들이 강화도에 모여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연합운동회를 개최했다.⁸³⁾ 이러한 지방의 사립학교 운동회는 관료, 자산가, 학생들은 물론 지역

79) 1905-1910년에 서울에서 148회, 경기도에서 48회, 평안도에서 35회 실시되었다. 김성학, 앞의 논문(2011), 9쪽.

80) 《황성신문》, 1908년 4월 23일자.

81) 《황성신문》, 1907년 5월 14일자.

82) 그 밖에도 구한말에 운동회 실시를 통해 즉석에서 학교 건립비가 모금되거나, 관람자가 자식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황성신문》, 1906년 5월 22일자, 1908년 5월 20일자.

83) 김형목, 「한말 경기도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2009), 135-139쪽.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 열기와 함께 실행되었는데, 사회단체의 운영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중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운동이 지방 곳곳의 밑으로부터의 열기와 화합하며 지방의 운동회는 민족이 살아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1908년에 절정에 달하는 사립학교의 연합운동회는 반일적 색채가 진해져 이토 통감이 다음과 같은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한국 내에는 학교라고 칭하는 것이 매우 많다. [...]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선 먹고 입는 게 궁하지 않게 하고 그 후에 다양한 능력을 익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쓸데없이 독립을 주장해 애국을 외쳐도 무위도식하면 국가를 위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최근 학교의 운동회라는 것이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천박한 방법으로 애국심의 발동을 재촉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학교 운동회는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장려하여 배일주의를 외치고 다니는 어리석은 행위는 한국의 이익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고 그저 학교 학생과 일본 병사와의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日韓外交資料集成』 제6권, 926-927쪽)⁸⁴⁾

이러한 이토의 불만은 1908년 9월 1일 정부의 사립학교 훈령에 의해 사립학교의 운동회 자제 촉구, 사실상의 금지령으로 구체화된다.⁸⁵⁾ 이러한 지방 사립학교 운동회의 증가 흐름은 1907년 혹은 1908년부터 '민족'이라는 언어가 인종이나 국민이라는 개념과 구별되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⁸⁶⁾ 그러나 운동회를 통한 민족적 반일운동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경향도 있었고, 지방의 사립학교 설립이나 사립학교 운동회를 민족주의적인 것으로만 보기에 어려운 대목들도 있다.

84) 이나바 쓰기오, 앞의 책, 120쪽에서 재인용.

85) “規模의 運動會를 開하야 數日 或 十數日의 課業을 廢止하는 等 事는 近來에 最多히 睹하는 比라 此等은 實로 教育의 普及을 害하고 又 其本旨를 愆하는 者니 此를 學校에 周悉警告하야 其 弊風을 除去하기에 努力함이 可함.” 학부 훈령 제2호, 구한국관보, 1908년 9월 1일.

86)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제10호 (2001), 167-177쪽;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창간호 (2008), 100-110쪽.

3. 구한말 운동회 속의 일본인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방 학교 운동회에서조차 종종 일본인은 교사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운동회에 참석하고 기부했다. 일본인이 한국인의 운동회에 등장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은 1905년 이후 일본의 강권적 지배 보완책과 조선 사회의 일본화 촉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⁸⁷⁾ 일례로 1905년에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운동회를 제외할 때 가장 먼저 운동회가 실시된 기록을 남긴 해주의 일어학당을 보자. 이 학교는 일본 불교인 정토종에서 설립한 것이고, 이 운동회는 자신들의 사립학교를 홍보하는 수단이었다.⁸⁸⁾ 그리고 이러한 일본 종교의 포교 활동은 통감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⁸⁹⁾

일본계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일본인이 개입하고 있었다. 1905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운동회에서는 약국을 운영하는 일본인이 연고를, 각자(刻字)하는 일본인이 책을 기증했다.⁹⁰⁾ 1908년 신명학교 봄 운동회에는 일본인 경찰, 상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⁹¹⁾ 1906년 서울의 광성학교⁹²⁾, 1907년 공주 명화학교⁹³⁾ 운동회 때도 일본인 교사가 시상했고, 사립학교는 아니지만 1907년 6월 전주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에서 경찰서의 일본인 간부들과 군인들이 기부했다는 기록⁹⁴⁾도 있다. 1908년 보령군 신명학교 운동회에서 일본인 교사, 순사 및 광천상점 주인 등이 시상했고⁹⁵⁾, 같은 해 양평군 연합운동회에서 우편취급소의 일본인 등이 공책과 돈을 기부했다.⁹⁶⁾ 1909년 이후 운동회에서 일본인의 기부는 더욱 빈번하게 발견된다. 일본인 경찰이나 군인은 단순히 한국인 운동회를 경제적으로 조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초래될 수 있는

87) 윤건차, 앞의 책, 259쪽.

88) 《황성신문》, 1905년 5월 29일자.

89) 윤건차, 앞의 책, 259-260쪽.

90) 《황성신문》, 1905년 5월 24일자.

91) 《황성신문》, 1908년 5월 20일자.

92) 《황성신문》, 1906년 5월 2일자.

93) 《황성신문》, 1906년 7월 17일자.

94) 《황성신문》, 1907년 6월 1일자.

95) 《황성신문》, 1908년 5월 20일자.

96) 《황성신문》, 1908년 11월 14일자.

혼란 상황을 방지하고 불온한 언행을 징벌할 감시자이며, 누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 상인들도 단순히 선의로 기부를 했다기보다 나중에 자신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지방 운동회에 등장할 정도로 일본의 침투는 광범위했다.

1908년 은진군의 공립강경보통학교의 운동회는 일본인이 개입된 운동회 중에서도 독특한 유형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운동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공립보통학교이므로 교감이 일본인이라는 점이 특이하지는 않지만 이 운동회에는 일본인회장, 우편국장, 한남학당장 등 유난히 일본인들의 연설이 많았다. 이 학교는 사립 창흥학교, 일본인 소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연합운동회를 실시했는데, 이 운동회에는 당시에 흔했던 '만세' 부르기도 있었고, 애국가 제창도 있었다.⁹⁷⁾ 또한 1909년 개성 학교들의 연합운동회는 태극기를 약 10m 높이에 게양하고 운동장 입구에 이화태극(李花太極)이라는 판액을 걸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인 공립학교가 참여했다.⁹⁸⁾

지방 연합운동회의 전반적인 민족주의적 열기를 감안한다면 일본 학생과 함께한 운동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물론 이런 운동회가 실시된 공간의 민족주의적 상징과 형식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 통감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었을지, 운동회의 속성을 감안하여 일본인과 운동으로 경쟁하여 이기고 싶은 욕망의 발로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용절감의 차원이었는지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⁹⁹⁾ 하지만 운동회가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지 않은 운동회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1900년대 후반의 운동회들 중 민족주의적 요소가

97) 《황성신문》, 1908년 4월 2일자. 1908년 이후 운동회에서 만세의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대군주폐하나 대한제국을 위해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만약 대황제폐하나 대한제국을 위해 만세를 부를 경우 1910년 공업전습소의 경우처럼 일본 감시권력의 요구의 대상이 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9일자).

98) 《황성신문》, 1909년 5월 5일자.

99) 박상석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한일 양국 사람들의 평등주의, 일본인의 친한적(親韓的) 성격의 발로, 한일 공동주의 등으로 설명하지만 어떠한 ‘-주의’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경향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특히 박상석 자신이 구한말 운동회의 대체적 경향을 애국주의로 규정했기에 본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박상석, 앞의 논문, 252-263쪽.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단지 근대적 교육의 확산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상징과 행태가 반복될 때 많은 경우 민족주의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민족주의에 무감각해지는 역설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일본의 침략적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심이 컸지만 일진회가 세운 것을 비롯하여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수요도 존재했다. 김윤식이 을미의숙을 설립할 때부터 일본어를 통해 문명개화를 배워야 한다고 천명한 것은 개화의 길이 일본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구한말의 상황을 예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회라는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한국에서 을미의숙을 시작으로 실시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회는 도입된 이후 한국에서 문명개화의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운동회장의 모든 배치가 학교장 혹은 내빈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운동하는 이들의 동작을 잘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기에 꼭대기의 권력자가 교체되는 순간 운동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특히 1907년 이후 서울의 관사립학교 연합운동회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지방학교에서도 일본인의 은밀한 혹은 명시적인 감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의 운동회들은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들도 많았지만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IV. 맺음말

일본에서 1874년 해군병학료를 통해 영국인의 권유로 나중에 운동회로 명명될 행사가 시작되었듯이, 구한말 운동회는 일본인이 운영한 을미의숙을 통해 일본인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민족주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운동회를 자신들의 천황 중심 근대화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내면화했고, 청일 전쟁이나 러일전쟁 등 실제 국가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했다.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운동회는 초기에 천황 자리에 고종을 위치시킴으로써 군주의 입장에서 왕권·황제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국가적 행사로서의 구한말 운동회

는 민족주의적이라기보다 ‘충군애국주의적’이었다. 그러나 개화와 관료와 지식인은 운동회를 지덕체가 고루 갖춰진 문명개화된 인간을 양성하는 장으로 파악하며 군주와는 다른 의미에서 긍정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국권 상실이 분명해지던 러일전쟁 이후 운동회는 한국에서 활발해진 민족주의적 실력 양성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국토 밖에서 외국과 전투를 하며 운동회를 활용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사실상의 점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운동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주의 위치에 순종과 이토 히로부미가 동시에 등장하는 순간 운동회는 쉽게 일본 제국 통치의 방편으로 대치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운동회의 장은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항적 성격의 민족주의로서의 의미가 있을지언정 원하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는 없었다.¹⁰⁰⁾

비록 운동회를 통한 민족주의 운동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스포츠는 한국 민족이 상대적으로 탄압을 덜 받으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통로였고, 그 기원은 구한말 운동회에서 찾을 수 있다. 스포츠가 민족주의와 잘 융합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근대 올림픽이 있지만 스포츠가 민족주의적 감정 고양을 위해 동원되는 일은 비밀비재했다. 특히 대규모 국가 간 전쟁이 줄어들면서 스포츠 경기가 대리전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구한말 운동회에는 처음부터 군사적 요소가 존재했고, 운동회에서 모의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구한말의 기록에서 일본을 명확한 적으로 상정하고 운동회가 실시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는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자강을 강조한 당시 민족주의의 근본적 한계의 영향이기도 했다. 또 운동회와 스포츠는 단지 대리전쟁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증진 수단, 공정한 경쟁의 장, 유희, 축제, 규율 권력의 시선 등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면이, 다른 경우에는 정치와 무관한 면이 부각될 수 있다.

100) 천정환의 다음 언급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상무는 기실 체육에 대한 예찬이나 무장 투쟁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무장 투쟁을 통해서만 실천될 것이었다. 그러나 삼남의 일부 유생과 농민들이 일본군과의 투쟁에 나섰을 뿐 당시 주류 사회는 대부분 이런 무장 투쟁을 소란이나 폭동으로 간주하거나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체육 담론은 당시 지식인 담론의 지배적 형태가 그러했듯이 서양 국민의 애국주의를 예로 끌어들이기 수밖에 없었다. 생각과 현실이 따로 늘었던 것이다.” 천정환, 앞의 책, 97-98쪽.

한국에서 운동회는 근대적 교육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교육은 구한말 개화와 지식인들이 한국인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중시한 분야였다. 운동회가 신체적 탁월함을 겨루는 모임이지만 구한말 운동회에 계산이나 작문이 종목으로 포함된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운동회의 상품은 신체 단련 도구가 아닌 책과 필기구 위주였다. 그러므로 운동회는 문명인의 몸을 만들고 잠재적인 군인을 양성하는 신체 단련의 성격과 함께 근대교육을 완전히 체득한 개조된 정신의 인간을 만들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개화주의자들이 바라는 한국의 민족은 바로 이러한 개조된 개인들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과 한국 민족의 정수를 통해 민족운동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민족주의적 입장과 갈등한다. 운동회가 복합적 산물이며 민족주의도 복잡한 개념인 만큼 이 둘의 관계는 다면적이었다.

참 고 문 헌

- 『구한국관보』.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의교문서편찬위원회, 『구한국의교문서』 제3권.
日案 3.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9.
- 이원용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III-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선인, 2011.
- 강동국, 「근대 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2005, 5-35쪽.
- 김경미, 「엘미의숙의 성격 규명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사학』 제20집, 1998, 241-258쪽.
- 유혜자,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해안, 2009.
- 김성학, 「학교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혼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1권 1호, 2009, 57-94쪽.
- _____, 「근대 학교운동회의 팽창: 그 실태와 동인」. 『한국교육사학』 제33권 1호, 2011, 1-46쪽.
- 김현숙,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2005, 117-140쪽.
- _____, 「운동회의 기능과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2010, 7-31쪽.
- 김형목, 「한말 경기도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2009, 113-149쪽.
-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민음사, 1983.
- 박상석, 「구한말 운동회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찬승,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창간호, 2008, 79-120쪽.
-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10호, 2001, 149-179쪽.
- _____, 『대한제국기 민족담론과 국가구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 백원칠·조영웅, 「대한제국기 체육교육정책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0권 1호, 2012, 19-32쪽.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손환·박상석,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6호, 2009, 15-23쪽.
- 심승구, 「근대 스포츠와 여가의 탄생」. 『한국학 논총』 제34집, 2010, 1347-1390쪽.
- 요시미 순야 외 저, 이태문 역, 『운동회: 근대의 신체』. 논형, 2007.

- 윤건차 저, 교육출판기획실·심성보 공역,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 1987.
- 이나바 쓰기오 저, 홍준기 역,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누리, 2006.
- 이학래, 『한국체육사연구』. 국학연구원, 2003.
- 장구식, 「20세기 전반 한국 사상계의 궤적과 민족주의 담론」. 『한국사연구』 제150호, 2010, 271-312쪽.
- 천정환, 『끝나지 않는 신드롬: 친일과 반일을 넘어선 식민지 시대 다시 읽기』. 푸른역사, 2005.
- 황의룡·김필승, 「한국의 근대화와 운동회에 대한 비교 연구: 1876년-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2호, 2011, 3-16쪽.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국 문 요 약

구한말 운동회는 한국 민족주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으나 1895년 을미의 속의 최초의 운동회부터 1910년까지 일관되게 민족주의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사상으로서 민족주의는 러일전쟁 이후에 등장했고, 1900년 이전의 운동회는 형식적으로도 민족이 아니라 군주와 국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1905년 이후의 운동회 중 서울에서 정부 주도로 개최된 연합운동회는 여전히 군주와 국가를 앞세웠고, 더욱이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군주와 함께 등장하여 민족주의적 행사로 간주하기 어렵다. 한편 1905년 이후 지방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개최된 운동회들은 민족주의 사상과 조용하며 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 기능했다. 그렇지만 이런 지방 운동회에 일본인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투고일 2012. 12. 26.

심사일 2013. 1. 31.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구한말 운동회(Sports meetings), 한국 민족주의(Korean nationalism), 을미의속(Eul-mi-ui-suk), 근대교육(modern education), 대한제국(the Daehan Empire)

